

# 30도 웃도는 땀별 속에서도 '방역 구슬땀'

## 광주 북구 새마을회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의료봉사 동행 취재

### 도착 첫날부터 마을 청소 등 강행군...주민들과 한마음 학용품 세트 받아주고 기뻐하는 아이들보니 가슴 뭉클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금세 눈가로 흘러내렸다. 30도를 웃도는 땀별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방역기'의 시동은 쉽게 걸리지 않았다. 태두에스엔지 이경호 대표와 광주 북구 새마을회 정기식 부회장은 연료 주입 노즐이 막혀 고장 난 방역기를 고치느라 1시간째 씨름중이다. 이 대표와 정 부회장의 노력이 통했는지 한 시간이 지나자 방역기가 우렁찬 소리와 함께 희뿌연 연기를 내뿜었다.

2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100km 가량 떨어진 캄퐁스푸 주(州) 광주진료소 앞엔 300여 명의 현지 주민들이 모여들어 마치 마을축제를 방불케 했다.

봉사활동 첫날, 광주진료소에 도착한 광주시 북구 새마을회 회원들은 첫 일정을

로 진료소 주변과 마을 청소로 나섰다. 그 뒤를 따라 무거운 방역기를 짊어진 회원들이 마을 곳곳을 돌며 방역활동을 벌였다. 처음엔 우두커니 지켜보기만 하던 현지 주민들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봉사단원들을 보면서 속속 마을 청소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진료소 앞마당 한쪽에선 새마을회 회원들과 문상필 광주시의원이 어린이들에게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고, 드림스포츠 김운수 대표는 이곳 아이들과 농구경기를 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같은 시각 진료소 안에서는 의료 봉사가 진행됐다. 버들치과 윤광철 원장과 밝은 안과 김재봉 원장, 아이퍼스트이동병원 김영의 원장은 한 명이라도 더 환자를 치료

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반납했다.

올해 10살이 된 소년 콘마카다는 수년 전부터 전체 치아 절반이 썩어버렸다. 최근엔 염증이 심해져 음식조차 씹어 삼킬 수 없는 상태. 이날 아들의 치료를 지켜보던 콘마카다의 엄마는 진료소를 나서면서 연신 '감사합니다'는 한국말을 쏟아냈다.

눈이 아픈 노인들, 아픈 아이를 안고 몇 시간씩 걸어온 캄보디아 부모들, 150여명에 이르는 환자들은 한국(광주)에서 진료소(의사)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섰다.

진료를 마친 아이들 손엔 하나같이 선물이 들려있었다. 광주치과의사회와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천사들의 놀이터, 한국프라이머약 등이 마련한 치약·칫솔과 신발과 옷, 학용품 세트들 손에 쥔 아이들의 얼굴엔 미소가 떠날 줄 몰랐다.

오후엔 이곳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도 열렸다. 북구 새마을회 김미화 부녀회장 등 여성 새마을회 회원들이 선물한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소년 소녀들의 얼굴에선 희망이 피어올랐다. 사진 찍는 체험과 가족 사진 찍어주는 시간도 가졌다.

주민 쌤핑(여·32)씨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없었는데, 뜻밖에 가족사진이 생겨 평생 보물로 간직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실했다.

(새희망나무) 정승욱 대표는 "이번에 오신 분들 모두 해외봉사가 처음이라 걱정했지만 막상 봉사활동이 시작되자 새마을회 특유의 조직력이 유감없이 발휘됐다"며 "현지 주민들에게 보탬이되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는 지난해 6월 (새희망나무)를 비롯해 광주시·광주시의회·광주지역 의약 5단체, 광주일보가 참여해 개원했고, 지역 의료계에서 의료장비와 약품 등을 지원했다. 의사 3명 등 총 34명이 참여한 이번 의료봉사는 진료소 개원 이후 11번째로 오는 29일까지 4박 5일간 진행 된다.

/캄보디아=박기용기자pboxer@



26일 광주공동체 해외봉사단(단장 문상필 광주시의원)이 캄보디아 캄퐁스푸 주 광주진료소에서 의료·사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단은 환자 150여 명에게 안과·치과·소아과 등 치료를 제공했으며, 마을주민 300여 명에게 이·미용과 사진찍기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 /캄보디아=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7 달뜨기 11:38  
해질 18:49 달지기 01:02

봄봄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2/20	보성	맑음	-2/18
목포	맑음	3/14	순천	맑음	4/20
여수	맑음	7/15	영광	맑음	-2/17
나주	맑음	-2/21	진도	맑음	1/16
완도	맑음	3/17	전주	맑음	0/19
구례	맑음	-2/20	군산	맑음	0/15
강진	맑음	-1/18	남원	맑음	-2/19
해남	맑음	-2/17	홍산도	맑음	4/10
장성	맑음	-2/19			

		오전		오후	
서해	남해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안바다	안바다	북동~동	0.5	동~남동	0.5
남부	남부	북동~동	0.5~1.0	동~남동	0.5~1.0
안바다	안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
남해	남해	남동(동)	0.5~1.0	서~북서	0.5~1.0
서부	서부	남동(서)	0.5~1.5	북~북동	1.0~1.5

		밀물	썰물
목포	07:22	12:31	
	19:21	23:40	
여수	01:53	07:55	
	13:23	20:19	

수면	100
운동	80
빨래	90

## 광주·전남 주말 완연한 봄...가족 나들이 가볼까

나주 배꽃 내달 11일 만개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5도 높은 20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날씨가 예상된다. 다음달 11일이면 나주 배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7일 광주·전남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고 26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포근하겠다.

주말과 휴일인 28~29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으나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5도 높은 20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특히 여수와 광양에 건조경보가 순천, 보성 등 11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달 말까지 비 소식이 없어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 봄 나주 배꽃 만개 시기를 다음달 11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일 늦은 것으로 배꽃 개화시기에 영향을 주는 2~3월 기온이 지난해보다 1.7도가량 낮았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고속도로 설계속도 시속 140km로 상향 추진

국토부, 선형설계 용역 발주  
고속도로 설계속도를 현재의 시속 120km에서 140km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맞춰 향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까지 개정될 경우 실제 고속도로의 운행 제한 속도도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금보다 높은 시속 140km로 설계속도를 설정하고 도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고속도로 선형설계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초고속도로 선형설계 지침 마련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자동차의 성능 개선으로 기하구조가 양호한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일부 운전자의 최고 주행속도가 시속 140km를 초과하는 현실이 설계속도 상향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는 설계속도가 시속 120km까지만 제시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고속도로에서는 140km 이상의 초고속으로 주행할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의 고속도로 설계속도는 1979년에 정해진 것이다. /연합뉴스

## '담양 펜션 화재' 유족 도운 광주지검

범죄피해자 심의위 거쳐 생계·치료비 지원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는 검찰이 직접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고, 범죄 피해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다.

검찰이 담양 펜션 화재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희생자 가족 및 피해자를 배려한 지원 정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지검(검사장 김해수)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담양 펜션화재 사건과 관련, 최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망한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에게 1960만원의 생계·치료비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찰청이 지난 1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 이후 광주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생계비·장례비 등이 지원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양 화재펜션 사건의 경우 검찰은 펜션 주인의 사정 등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이 장례비 외에 별다른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을 파악, 사망자 4명의 가족과 화상을 입은 피해자 1명에게 생계비(660만원), 치료비(1300만원) 등을 지원했다.

김희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담양 펜션 화재 사건 관련자의 기소·공소 유지 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아픔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0억 한정

#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령고등학교 옆)